

국제수산월간동향

2020. 8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차 례

1. 가나 선망선 선주들, 재차 세금 가면 요구1
2. 청색 편드가 참치 자원 회복을 가져올 것인가?3
3. 중국 일부 지역 냉동 수산식품 수입 전면중단 6
4. 중국 장강 유역 어획 금지, 퇴직 어민 지원책 마련 시급 7
5. 일본 참다랑어 기업 Usufuku Honten MSC 증명서 획득 8
6. 미 서부연안 오징어 자원상태 개선 9
7. 코로나19 영향으로 북한 어업권 중국 매각을 정지 13

- 가나 참치 업계와 가나 정부 간 어업허가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가나 참치 협회(GTA)는 가나 수산부에서 금년 1월 허가료를 인상한 후 이후 재차 허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허가료는 톤수(GRT)당 35불에서 135불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1,000톤인 선망선 1척이 연간 납부해야 하는 허가료가 135,000불이고, 1,500톤이 넘는 선망선은 연간 200,000불 이상의 허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가나 수산부는 금년 1월 톤수당 200불을 부과하려고 하면서, 이것으로 외국인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대형 산업 트롤선에 의해 국가의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톤수를 고려할 때, 허가료는 선망선에 적용될 것임. ICCAT 선박등록부에 따르면, 가나에는 17척의 선망선과 18척의 채낚기선이 있음.
- GTA 회장 John Davidson은 2020년 2월 14일 가나 정부와 협회 간 허가료를 35불에서 65불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가나 정부측에서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함. 협회 측에서는 가나 수산부에게 이러한 조정이 85% 인상인 점을 지적하였지만, 당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인상인 톤수당 135불을 부과하였음.
- Davidson은 현재 15척의 자국민 소유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45명의 선원을 포함하여 항구 등 관련 노동자 3,000명이 선박 운항이 중단된 1월부터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음.
- "JL Fisheries, Trust Fishing Ventures, D&H Fishing, Maroc Logistics와 같은 조업사들이 집어등 사용금지 조치와 함께 허가료 인상으로 인해 운항을 중단했다"고 GTA 회장은 말함.
- Atuna는 가나의 허가료를 태평양에서의 입어료와 단순비교 해보았음. 1,500톤 선망선이 일년에 평균 7번의 항차를 한다면, 약 10,500톤의

참치를 하역할 수 있음. 선주들에게는 톤당 19불의 비용이 발생함. 반면, 중서부태평양에서는 조업일수당 12,000불을 지불하고 일일 약 30톤을 어획하여 선박 운항자들에게 톤당 400불의 비용이 발생함.

※ 기사 출처: www.atuna.com¹⁾

1) 2020년 8월 27일 검색

<https://atuna.com/news/ghana-tuna-association-asks-again-for-fee-reduction?highlight=WyjnaGFuYSIsImdoYW5hJ3MiXQ==>

- 비영리 금융 싱크탱크인 Planet Tracker는 청색 펀드와 수산자원의 회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속가능한 자원량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참치 선단들에게 어획량을 감축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특별한 금융수단들로 보전해 줄 수 있음을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적 어업자들은 향후 필요한 금융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함. 더 많은 자원량이 더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하지만, “어업자들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청색 펀드는 5년간 발생하는 어업자들의 연간 유동성의 차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자원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업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어획능력 감축을 해야만 함. 자원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획량은 증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리게 됨. 하지만, 5년 이내에 자원량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됨. 청색 펀드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투자자와 어업자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세계은행과 같은 매개자를 필요로 함.
- 수조원 매출을 올리는 참치 회사들이 청색 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할지 여부는 의문임. 이 회사들은 이미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동원할 것임. 그러므로, 대기업이 아닌 지역의 영세 어업자들과 스타트업자들이 이러한 금융옵션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중대한 질문은 투자자들이 자원의 회복여부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펀드에 과연 투자할 것인가임. 만약 거대 회사들이 어획량을 줄이지 않아 5년 후 자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됨.

- Planet Tracker는 청색 펀드가 투자자와 어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과도어획을 방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 하지만, 구상 단계를 넘어 청색 펀드의 구체적인 실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을 넘어야만 함. 채권 발행기관 선정과 적절한 모니터링 및 규제와 함께, RFMO 내 참치 어획쿼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청색 경제를 위한 총체적인 관리정책이 있어야 지역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음.

※ 기사 출처: www.atuna.com²⁾

2) 2020년 8월 22일 검색

<https://atuna.com/news/can-blue-bonds-financing-create-tuna-stock-recovery?highlight=WyJib25kcyJd>

□ 중국 수입산 냉동해산물 포장 내외부에서 코로나19 검출 빈번

- 최근 40일간 샤먼, 대련, 충칭, 옌타이 등 전국 9개 지역의 수입 냉동포장제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남미산 흰새우의 포장 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남미에서 수입한 신선식품의 냉동 보관고에서의 검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 이에 대해 쓰촨대학 호흡기위중증증상의학과 량종안(梁宗安)교수는 “냉동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저온의 환경에서 운반이 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의 생존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운송되는 냉동해산물 자체나 그 포장 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쉽다”고 언급
- 식품안전품질통제연구소 야오웨이룽(姚卫蓉)소장은 저온에서 바이러스는 사라지지도 않고 증식하지도 않으며 그대로의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밝힘

□ 중국 일부 지방정부 냉동수산물 제품 잠정 수입 중단

- 바이러스의 외래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구이강(贵港)시는 냉동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광저우(广州)시와 산시성(山西省)은 코로나 심각지역에서 수입하는 냉동 수산식품에 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림
-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남미산 흰새우의 판매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판매중지되거나 검역을 강화한 상황임
- 다른 지역도 이에 따라 검사를 한 단계 더 강화하거나 수산물 잠정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 중임

- 중국 농업농촌부, 장강 유역 '어획 금지, 퇴직 어민 생계 보장' 관련 화상회의 개최
- 한장푸(韩长赋) 중국 농업농촌부장은 "어선 및 어민 지원 대상자 파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언급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선 신청 어선 11만여척, 퇴직 신청 어민 23만 명으로, 처리 완료 건은 어선 8만 3천척, 어민 13만 8천명 수준임
 - 파악된 대상자들에 대해 지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장강유역의 어획금지, 어민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자금조달 통로를 확보하여 자금 보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대상자 명단에 따라 선망 회수 처리 및 보조금 지급 작업을 규정에 맞춰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퇴직 어민의 취업 지원, 퇴직 어민들만의 조합 설립 적극 추진, 수산양식업, 레저 관광 농(어)업 사업 등을 전개할 필요성 있으며 일자리를 확대하고 무료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용역 수출, 공익성 일자리 창출 등의 방식을 통해 어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
 - '장강(長江) 본류, 민강(岷江), 타강(沱江), 적수하(赤水河), 가릉강(嘉陵江), 우강(乌江), 한강(漢江), 대도하(大渡河), 피양호(鄱陽湖), 동정호(洞庭湖)' 등 주요 강, 호수, 하천에 대한 어업 행정적 법 집행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독립적인 기구, 전문 인력, 법 집행력, 특수활동비, 순찰대, 민원 안내 콜센터'의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함

※ 출처: 중국 농업농촌부 신문⁴⁾

3) <https://new.qq.com/omn/20200819/20200819A0FCZ600.html>
http://www.shuichan.cc/news_view-406894.html
<https://new.qq.com/omn/20200816/20200816A0HXNW00.html>

4) http://www.moa.gov.cn/xw/zwdt/202008/t20200807_6350066.htm

- 일본에서 7번째로 MSC 획득, 지역 수산관리시스템 복구에 기여 원해
 - 일본 기업 Usufuku Honten Co. Ltd가 세계 최초로 연승 참다랑어 어업에서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지속가능한 어업 증명서를 획득함
 - 이로써 Usufuku Honten은 일본에서 7번째로 MSC 증명서를 받은 기업이 되었음
 - MSC 어업 기준은 MSC가 해양 과학자들과 어업계와 협력하여 정산 어류에 관한 과학기반 지속가능한 기준으로서, Usufuku Honten은 독립적으로 본 기준에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함
 - 동 기업은 MSC 증명서 획득을 통해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파괴된 지역 어업관리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다른 어업을 참여시키려 했다고 밝힘
 - 또한 자신들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입증할 뿐 아니라, 자신이 IUU 어업에 가담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성을 두려는 목적으로 MSC 증명서를 획득함
 - MSC 증명서를 받은 동 기업의 참다랑어 어업에서는 고유 번호가 부여된 조작 불가한 전자 태그를 참다랑어에 부착하여 완전한 이력추적이 가능함
 - 일일 어획량은 전자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동 기록은 일본 수산청과 대서양 다랑어 관리 기구인 ICCAT에게 전송됨
 - Usufuku Honten의 이번 MSC 증명서 발급 뒤에는 참다랑어 자원 관리를 개선하려는 일본 수산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함

※ 기사 출처: www.perishalnes.com⁵⁾

□ 2018-19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해수온 및 강우 패턴의 영향 커

- 캘리포니아 오징어 선단은 높은 관세와 코로나로 인한 시장 침체, 늦은 어기 시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2020년 어기 오징어 자원상태는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임
- 7월 초 기준, 2020년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의 오징어 어획량은 42,000 미국 톤임
- 캘리포니아의 올해 10,107 미국 톤 어획량과 기타 해양학 데이터를 통해 오징어 어장에 2018년과 2019년 엘니뇨 현상의 영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고 함
- 평균 장기 해수온과 강우 패턴이 중간으로 향하며 오징어 생산 전망이 나아지고 있음
- 하지만 서부해안 오징어 어획량의 80퍼센트가 소비되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음
- 2년 전 미국의 대중국 오징어 수출 관세는 27퍼센트였으나, 작년 미국이 여기에 25퍼센트를 더해 총 52퍼센트의 관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오징어 수입업자들의 비용이 대단히 증가함
- 2019년 미국은 약 1,027만 킬로의 다양한 오징어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2,198만 달러의 수익을 올림
- 대부분의 미서부해안 오징어는 중국에서 소비되지만, 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오징어는 중국에서 재공정을 거쳐 유럽 소매시장에서 판매됨
- 이러한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지만, 서부 연안 오징어는 2020년 더 높은 산지 가격인 미국 톤당 1,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음

□ WCPFC 소위원회에서 참다랑어 쿼터 확대를 제안할 방침

참다랑어 새로운 자원 평가 결과 (장래 예측 시나리오)				
구분	중서부 태평양		동부 태평양	잠정 회복 목표 달성 확률
	소형어	대형어		
0	증가 없음		증가 없음	100%
1	+5%		+5%	100%
2	+10%		+10%	100%
3	+15%		+15%	99%
4	+20%		+20%	99%
5	증가 없음	+500톤	+500톤	100%
6	증가 없음	+600톤	+400톤	100%
7	증가 없음	+1650톤	+660톤	99%
8	+125톤	+375톤	+550톤	100%
9	+250톤	+250톤	+500톤	100%
10	+5%	+1,000톤	+500톤	100%
11	+5%	+1,300톤	+700톤	99%
12	+10%	+1,300톤	+700톤	99%

- 일본 수산청은 21일 연내에 예정된 중서부 태평양 참다랑어 위원회(WCPFC) 제16회 북소 위원회에 대비, 어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
- 참다랑어 자원 평가 결과, 장래 예측 시나리오에 대해 해설, **WCPFC 쿼터 확대를 제안할 방침**을 밝힘
- 설명회에 참가한 어민들은 이러한 수산청의 계획에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쿼터 확대를 요청

- 수산연구·교육기구 담당자가 올해 북태평양 참다랑어류 국제과학위원회(ISC)에서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평가에 대해 설명
- 근년 소형어 (0~2세어)의 어획 사망 압력이 크게 하락했다고 제시하며 "소형어 어획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원 관리 조치 결과"라고 평가
- 3년 간 소형어 자원량이 회복되고 있어 "친어 예비군이 되는 나이가 어린 어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친어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 수산청은 현재보다 소형어, 대형어 어획량 쿼터를 확대할 경우, **장래의 자원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산한 **1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 WCPFC가 제시한 '24년 잠정 회복 목표 (친어 자원량 약 4만 톤) 와 '34년 차기 회복 목표 (친어 자원량 약 4만 톤) 와 '34년 차기 회복 목표 (친어 자원량 약 13만 톤)에 대한 달성 확률을 제시
 - 모든 쿼터 확대 시나리오의 잠정 회복 목표는 99% 이상, 차기 회복 목표는 91% 이상
- 이번 자원 평가에서 자연계의 0세어가 17, 18년에는 저조한 수준으로 판명되어, **쿼터 확대를 요청하는 일본에 대해 환경 단체로부터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 어민으로부터는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 쿼터 증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안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이 많았음
- 작년 WCPFC에서 대만이 일본에 대형어 어획 쿼터를 300톤 전배(이양)한 것에 대해 수산청은 "대만 내부에서 일본에 전배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고, 올해는 대만이 대형어를 꽤 어획하고 있다. 솔직히 앞으로도 전배를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대만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답변
- 수산청에 따르면 **WCPFC 복소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로 10월 초순쯤 개최가 예정**
- 동 위원회에서 일본이 쿼터 확대 제안을 하기 전에 수산청은 어떤 시나리오로 쿼터

확대를 요청할 지에 대해 어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마련할 방침

- 단, **도서국, 호주, 뉴질랜드는 “쿼터 확대 등의 복잡한 논의는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연내에 쿼터 확대 합의는 어려울 수도 있음

※ 출처: 일본 미나토 신문⁶⁾

6)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4173> (20년 8월 27일 검색)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살오징어 성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업권 중국 판매를 정지**
- 홋카이도 기선 어업 협동 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코로나19 확대의 영향으로 중국 어선에 동해 (일본측 : 일본해)의 자국 수역에서의 살오징어 어업권 매각을 정지 (자유 아시아 방송 'Radio Free Asia' 보도)
 - 중국발 보도에 따르면, 매년 중국 어선에 동해 어장 어업권을 팔아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를 중단
 - 오징어 성어를 맞았지만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 단계에서는 어업권 판매를 중지해, 중국 남쪽 어선단이 북한 수역에 입역하지 못함
 - 함경북도 청진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별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북한 어민들이 원근해에 출어하지 않도록 강하게 통제되고 있어, 근해 가까운 쪽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임**
 - 지난 해까지는 중국 푸젠성, 저장성, 장쑤성 대규모 선단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여 살오징어를 독점으로 어획해 왔음
 - 한국 당국의 '16년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어업권을 매각해서 약 3,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함**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이 줄어들는데다 동해 어장의 어업권 매각도 중단된 상태**로, 외화 벌이가 어려워 북한 내부 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

※ 출처: 일본 미나토 신문⁷⁾

7)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4090> (20년 8월 27일 검색)